

2026년 제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공모요강 및 서식

제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문화를 누린다, 이야기를 잇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 공모개요

- (공모목적)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채워진 문화 누림 경험, 문화누리카드가 가진 사회적 가치 등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사업의 공익성 및 효과 확산
- (공모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참여대상)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및 담당자
- (응모방법) 응모자 1인당 수기 1편 응모(운영사무국 이메일 접수)
-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공모전 운영사무국
(arkomuuri@arko.or.kr /1522-5035)

* 운영기간 : ~2026년 10월 30일 / 평일 10:00~17:00(점심 12:00~13:00)제외

□ 추진일정

공모접수	서면심사	발표	성과공유 및 시상식
이메일 접수 (arkomuuri@arko.or.kr)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	홈페이지·SNS 채널 공지 및 개별 통보	시상식
2026년 8월 3일 (월) ~ 8월 31일 (월)	2026년 9월 2일 (수) ~ 09월 23일 (수)	2026년 9월 30일 (수)	2026년 10월 중순 (미정)

※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블로그 등에 공지하며, 수상자 개별통보(문자발송) 예정

□ 공모내용

- (공 모 명) 「 2026년 제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 문화를 누리다, 이야기를 잇다」
- (참여대상)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및 담당자
- (공모부문)

분야	공모부문
이용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2026년 이전 이용자도 참여 가능)
담당자	주민센터 담당자, 지자체 및 주관처 담당자, 복지시설 담당자, 가맹점주 및 실무자

○ 공모주제 및 예시

- 문화를 누리다, 이야기를 잇다

참여 부문	공모주제 예시
이용자	- 일상 속 문화가 만들어 준 따뜻한 기억 - 문화누리카드로 경험한 새로운 일상과 긍정적 변화 - 웃음과 감동이 함께한 문화생활 에피소드 - 문화가 일상이 되어 달라진 나의 이야기 - 작은 문화 경험이 가져온 큰 변화 - 문화누리카드와 함께한 가족과 따뜻한 시간
담당자	-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및 이용 업무 과정에서 경험한 특별한 에피소드 -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알게 된 뜻깊은 경험 -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보람과 행복 - 담당자가 생각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정책 의미와 가치 - 문화누리카드 업무를 하며 더 나은 문화향유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한 경험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수기(이용, 안내 등 전반)는 심사에서 제외

□ 작품응모

- 응모방법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문화누리카드 공식 블로그에서 서식을 다운받은 후 이메일(arkomuuri@arko.or.kr)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출품규격 : 응모자 1인당 수기(1편) 응모 가능 (중복응모 불가)
- 제출항목
 - 수기 신청 서식 2부(원본, pdf파일 2가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선정작 이용동의서 1부, (사진 첨부 시) 사진 원본 파일

○ 응모양식

- 글자크기 및 줄간격 : 12pt, 160%
- 글자모양 : 휴먼명조
- 분량 : A4 1쪽 이상 6쪽 이하 (*사진은 전체 분량에서 제외)
- 파일명 : 제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_제출자성함.hwp
제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_제출자성함.pdf

○ 유의사항

[윤리준수]

- 수기 내용은 본인이 체험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허구의 이야기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 아니거나 타 공모전 수상작품, AI 창작물,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복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회수 조치됩니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 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제출 작품의 법적(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분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됩니다.
-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저작권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최,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활용 시 수상자 성명은 "서울시 종로구 이○경" 형태로 표기됩니다.)
 - ☞ 활용목적 : 홍보·교육·캠페인 등
 - ☞ 활용형식 : 수상작품의 원문 또는 게시 형태, 분량, 홍보목적에 적합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 또는 각색할 수 있음
 - ☞ 활용범위 : 수기집, 각종 인쇄물, 영상, 방송·보도, 전시, 온라인 등에서 복제·전송·배포·게시
 - ☞ 이용대가 :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에 기재되어있는 활용목적·형식·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상금으로 대체함
- ※ 수기와 함께 제출한 사진도 위 내용에 따라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가지므로, 초상권에 침해되지 않는 사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개요

- 심사방법 : 응모작 대상으로 서면 심사
-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내용
완성도(20)	• 글의 완성도 • 수기 내용과 사업취지와 부합성
작품성(40)	•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험한 긍정적 변화에 대한 표현 •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표현
효과성(40)	• 우수사례 확산(적용) 가능성 •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기여 가능성 • 기초예술분야(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회, 전시 등) 이용 활성화 기여 가능성

□ 시상계획

- 총 80작품 선정, 상장 및 상금(상품권) 수여

구분	선정작 수	상금	부문	내역
대상	2작	50만 원	이용자/담당자 각 1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	4작	30만 원	이용자/담당자 각 2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우수상	8작	15만 원	이용자/담당자 각 4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장려상	16작	10만 원	이용자/담당자 각 8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입선	50작	5만 원	이용자 50작	-
총 규모	80작	750만 원	이용자 65작 담당자 15작	-

※ 시상 규모는 응모작품 수준 및 응모작품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식

- 일시 : 2026년 10월 중순
- 장소 : 미정

※ 주최측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제12회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전 수상작

(이용자 부문)

문화누리, 나의 소확행을 찾은 열쇠

이용자 부문
대상
박O연

‘소확행’이라는 말이 전래는 내게 슬프게 들렸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따뜻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랫동안 이 단어를 ‘포기’의 다른 이름처럼 느꼈다. 문화생활은 늘 생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나는 친구들처럼 공연이나 전시를 찾아다니는 대신 맑은 날씨나 세스리 같은 일상 속 작은 것들에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갖지 못함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고 ‘행복을 즐기는 연습’에 가까웠다. 나에게 소확행은 행복이 아닌, 문화생활을 포기하기 위한 자기 설득의 결과였던 것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홀로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 오셨다. 폭력적인 가정을 벗어났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깨끗한 살림을 매일 같이 계산하며 살아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산다는 건, 늘 머릿속에 계산기를 켜 두 채 사는 것과 같았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셨지만, 내가 잠든 줄 아셨던 밤이면 조용히 눈물을 삼키시고 했다. 나 역시 ‘줄거름’보다는 ‘생존’에 더 집중해야 했다.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너무 일찍 알게 된 셈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은 문화생활과 점점 멀어졌다. 공연 한 번, 영화 한 편이 곧 생계비와 비교되었다. “그 돈이면 버스 못 번 될 수 있지?”, “영화는 나중에 TV로 보면 돼.”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다. 문화생활은 ‘비현실적인 욕망’이 되었고, 나는 행복을 제한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자님께 ‘문화누리카드’를 소개받았다. 오랫동안 문화생활을 ‘사치’라고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아둔 터라, 처음엔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영화 잘못 써서 낭비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마음 한켠에 남아,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간 문화누리카드는 서랍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건,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본 국내 여행 방송이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도 있구나.”라는 감탄 뒤 조용해진 순간,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저기 가볼까?” 그 한마디가 문화생활을 ‘사치’가 아닌 ‘어머니와 추억을 쌓는 기회’로 다가오게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화누리카드로 기차표를 예약했다.

울산에도 착한 순간, 오랜만에 마음의 간창이 풀렸다. 방송에서 보았던 대왕암 공원출렁다리를 걸으며, 바닷바람을 맞으며, 어머니와 함께 웃었다. 맑은 하늘을 날던 편이갈매기 소리와 내 웃음이 섞이자, 나는 낯설면서도 반가운 감정을 느꼈다. ‘아, 나도 이런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대답했다. 나의 행복을 점점 작게 만든 건 외부 환경뿐 아니라, 내 마음의 벽이었다는 것을. 그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자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채워졌다. 단순히 좋은 하루가 아니라, 오래 견딜 수 있는 버팀목 같은 무언가가 생긴 듯했다.

여행은 내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을 냈다. 그날의 여행이 계기가 되어,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하던 동생이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동생은 문화누리카드에서 첫걸음 소식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마포구 첫걸음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데. 같이 갈래?” 평소 서약했던 동생이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민 순간이었다.

우리는 어색함을 피해 축제장을 찾았다. 식사시간 외에는 좀처럼 말을 놓지 못했던 동생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축제장은 활기로 가득했고,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맛보며 조금씩 어색함을 풀어나갔다. 그러다 단음식을 좋아하는 동생의 눈에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가 띄었다. 평소 선뜻 사 먹기 어려웠던 달콤한 간식을 함께 나누며, 그날 우리는 첫걸음보다 더 뜻깊은 거리감을 조금씩 녹였다.

(담당자 부문)

파랑새는 있다!

- 삶의 곳곳에 깃든 행복을 찾아주는 파랑새카드의 미션 -

담당자 부문
대상
김O연

경기 화성시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복권이 계속되던 무더운 여름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령받은 내가 문화누리카드를 처음 만난 순간은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담당자라고 알기는 했는데, 당장 낯은 이용자를 놓여야 한다는 부담감은 무겁고, 사업에 대한 이해는 담당자인 나나 대상자분들이나 부족하기만 한 초짜 직원 난국.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너무나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급률과 사용률이 낮은 것이 안타까워 일단 미사용자들에게 무작정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문화누리카드를 아시나요?”, “발급받으셨는데 사용을 안 하셨네요! 사용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하데 알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반복되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 나도 계속 같은 답을 받게 된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몸이 아프니 카드 쓰러 다닐 줄 못 하겠어.”, “먹을 건 없어?”

깊은 깨달음이 왔다. “아 정책 취지와 실제 현장은 역시 다르구나! 현장에 나가 봐야겠네!” 몸으로 배우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는 내가 섰던 방법은 역시 나가서 직접 부딪치는 것이었다. 인기 있는 사용자와 이용 꿀팁을 생생하게 말하고 싶어 야근해 가며 PPT로 손수 만든 리플렛과 전화 주문용 상품 카탈로그를 가득 넣은 방한 가방, 아니 출장 가방을 챙겨 들었다.

‘꼭짓 모르시면 내가 가서 도와드리면 되지!’

침들어서 카드 쓰러 나갈 엄두가 안 난다는 할머니부터 찾아뵙기로 한다. 최대한 눈높이에 맞게 온천이며 복지관, 트로트 음반까지 알려드려도 이 더위에 집 밖에도 못 나가겠다는 손사래가 전화선 너머로 보이는 것만 같다. 외출을 자주 못 하니 혜택은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었다. 어르신은 막상 만나보니 너무 정중하시고,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하다. 정기간 서류를 슬쩍 넘겨보니, 어릴 수가! 장수하시다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와 동년배인 것이 아닌가? 괜히 반가운 마음에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신데

어쩔 이리 청정하시나 하나,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 눈이 반짝인다.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시는 말씀. “내가 젊을 때는 못 하는 게 없었어. 손재주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지금도 우리 손자들은 할머니 밥이 최고래!” 95세가 넘으신 지금도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우는 손주들을 위해 음식을 해주고 청작 당신은 삼 일을 알아놓는다면 웃으시는 할머니 얼굴에 자부심과 행복이 묻어난다. 카탈로그를 펴놓고 주머니 받거나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할머니 눈길에 수공예 찻시와 쪽빛 생활한복에 멈춘다. 외지 사는 손주들이 오랜만에 다니러 오는데 음식 해서 담아줄 예쁜 찻시와 새 한복 한 벌 사면 좋겠다는 할머니. 깔끔한 할머니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열목 하나 없는 주방에 멋진 음식 소담스레 담아낼 꽃 찻시 놓아드릴 수 있음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고은 한복 입고 새 그곳에 담아 내주시는 할머니 법은 얼마나 맛있고 애뜻할까? 물려주고도 벅찬 맘에 방문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새 한복과 예쁜 찻시, 아니 사실은 곧 찾아올 손주들을 기다리는 맘에 벌써 설렌다며 만류에도 불구하고 열라베이터까지 배송 나와 고맙다며 고개까지 숙이시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또 다른 분들을 만나러 갔다.



붙임

제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출품서식

접수번호

※ 기재안함

제목 (HY헤드라인M, 20p)

본문(휴먼명조체, 12pt, 줄간격 160%, A4 1쪽 이상 6쪽 이하(사진은 분량에서 제외),
여백(상 15, 하 15, 좌 20, 우 20, e머리말 10, 꼬리말 10)

※ 양식변경 불가, 폰트 유지

※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사진 첨부 가능

수기 내용 관련 사진 (*분량 제외)

!해당 부분 삭제하고 제출!

*jpg(jpeg), png 형식으로 별도 제출 필요

*수상 시 각종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초상권에 침해되지 않는 사진으로 제출

제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선정작 이용 동의서

참여부문(택1)	☐ 이용자	☐ 담당자						
※ 해당되는 부문에 작성								
(이용자) 문화누리카드 번호	9463-1000-0000-0000							
(담당자) 소속	기관명/업체명 등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							
제출자료	①수기 2부(hwp, pdf)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15조~22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출된 수기, 사진은 선정작에 한하여 사업홍보·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모요강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td> <td>제 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전 접수 및 선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td> <td> ○ 식별정보 : 성명, 문화누리카드 번호, 소속 ○ 연락처정보 : 주소, 연락처, 이메일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td> <td>공모전 종료 후 2개월 이내 파기</td> </tr> </tabl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 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전 접수 및 선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성명, 문화누리카드 번호, 소속 ○ 연락처정보 :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공모전 종료 후 2개월 이내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 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전 접수 및 선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성명, 문화누리카드 번호, 소속 ○ 연락처정보 :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공모전 종료 후 2개월 이내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수상작의 비영리적 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13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심사 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제출된 수기가 수상작으로 선정될 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선정작 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